

끝까지 들어봐야 한다.

어느 수영장에서 모델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수면 위로 얼굴만 내밀며 친구에게 큰소리로 말했다.

“글쎄 말이야, 내 수영복을 잃어버렸지 뭐야!”

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휴식을 취하던 십여 명의 남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.

그런데 잠시후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.

“그래서 동생 거 빌려 입고 왔어!”